

거짓말 한 당신 '튀어'

코믹 연극 2편 잇단 광주 공연

'라이어3-튀어' 16~25일

'죽여주는 이야기' 22~31일

유쾌한 코믹 연극 두편이 광주를 찾는다. 두 편 모두 서울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공연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연극 '라이어3'은 오는 16일부터 25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2시·7시)까지 5·18기념문화센터 민중홀 무대에 오른다.

1998년 국내에서 초연한 '라이어'는 19년간 쉬지 않고 공연되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3만2000여회 공연돼 4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국 작가 레이쿠니 원작으로 전 세계 60여국에서 공연중이다.

실재 없이 웃음 폭탄이 터지는 '라이어' 시리즈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톨니바퀴 맞물리듯 짝 찬 스토리가 흥미롭다. 특히 숨겨진 움직이는 배우들의 연기 공합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시리즈 3편 '튀어'는 평범한 회사원이 어느날 갑자기 100억 4000만원을 손에 넣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말단 농협 창구 직원 영호는 택시에서 야쿠자의 돈가방과 자신의 서류 가방을 바꿔 들고 만다. 영호는 야쿠자의 검은 돈 100억 4000만원을 들고 아내 은영과 해외로 도망가려 하지만 마음 착한 은영은 이를 완강히 반대한다.

영호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해 집까지 따라온 김억만 형사 등을 따돌리기 위해 영호는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지영·김시영·한대연·강이슬씨 등이 출연한다.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는 22~31



'죽여주는 이야기'

일까지 광주를 찾는다. 22~25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28~31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공연 시간은 모두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2시·7시.

화려한 언변과 자신만의 철학으로 관객들에게 확실한 죽음을 선사한다는 주인공 안락사. 그런 그에게 "꼭 죽고 싶다"며 모령의 여인 마돈나가 찾아온다. 여기에 예

고도 없이 그녀의 친구 바보 레옹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들의 사연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서로의 실체를 알아가게 되는데..

'죽이는 이야기'는 관객들이 적극 참여하는 연극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문의 1688-3820,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풍성한 2017 클래식 기다려지네

조성진 1월 리사이틀...호세 카레라스 등 내한

11월 베를린 필하모니·피아니스트 랑랑 협연

2017년은 풍성한 클래식 공연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니, 로열 콘서트헤바우 등 정상급 교향악단과 호세 카레라스·미샤 마이스키·조성진 등 스타 연주자들의 내한 무대가 마련된다.

클래식 음악 팬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될 시기는 11월이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11월19~20일)는 2018년 물리나는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과의 마지막 내한 무대로 피아니스트 랑랑이 협연한다. 로열 콘서트헤바우(11월15~16일)는 다니엘레 가티와 함께하는 첫 내한공연이다.

독일 쾰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2월10일)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2월20일)가 수석 객원지휘자 대니얼 하딩과 함께 찾아온다.

여기에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3월24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6월7~8일), 고음악 거장 필립 헤레베해와 그가 창단한 샹젤리제 오케스트라(6월17일) 등이 뒤를 잇는다.

그밖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5월25일) 독일 바이에른 슈타츠 오페라 오케스트라 내한공연(9월13일),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9월28일), 빈 심포니(12월5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12월12~13일)의 무대가 이

어진다.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스타 연주자들도 줄지어 국내 무대에 오른다. 조성진이 1월3~4일 리사이틀로 한 해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다.

이어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건반 위의 마녀'로 불리는 발렌티나 리시차(3월12일), 김선욱(3월18일), 베네수엘라 출신의 가브리엘라 몬테로(4월21일), 러시아의 스타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5월16일), 베트남 출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 당 타이 손(6월10일) 등이 잇따라 리사이틀을 연다.

손열음은 4~12월 네 차례에 걸쳐 '음악편지'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음악 세계를 펼치고 200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라파우 블레하츠(10월14일)가 한국에서 첫 독주회에 나서고 랑랑은 리사이틀과 협주곡 콘서트 등으로 두 차례 공연(12월6~7일)을 한다. 조지아 출신의 카타야 부니아티슈빌리의 리사이틀(11월1일)도 빼놓을 수 없다.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그가 만든 오케스트라인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5월30~31일)를 마련한다.

그밖에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9월12일)와 요요마(10월 중 예정), 키(9월12일)와 요요마(10월 중 예정), 첼리스트 사라 장(10월31일)과



호세 카레라스



랑랑

이차크 펠만(11월12일)의 리사이틀도 기대를 모은다.

성악가 가운데에는 호세 카레라스의 내한공연이 눈에 띈다.

서울시향은 '클라리넷 여제' 자비네 마이어,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첼리스트 린 하렌 등 거장들과 협연한다. KBS교향악단도 핀커스 주커만·고토 미도리·강동석·제임스 에네스 등과 피아니스트 파직 세이·파스칼 드바이용·니콜라이 루간스키 등과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



베를린 필 하모니

조선시대의 愛

'그루' 15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창작국악그룹 '그루'가 오는 1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그루 愛'를 주제로 공연을 연다.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일연국악한마당 초청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남녀 간의 만남에서 시작해 이별, 재회까지를 아름답게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별에 중점을 두고 만남의 순수함과 사랑의 따뜻함, 이별의 절절함을 담았다.

도령과 남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모습



을 담은 intro '임'(김예광 작곡)을 시작으로 남자와 도령이 서로를 소개하는 '절세미녀'와 '절세미남'(김보람 작곡, 그루 작사)이 이어진다. 이어 그대를 타는 남자를 보고 도령이 반하는 모습을 그린 '추천가',

두 사람의 사랑하는 장면을 표현한 '축전'을 비롯해 '연화', '애월', '꽃이 피다', '나비' 등 다양한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내일 문화관광포럼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13일 오후 2시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여행 콘텐츠의 힘, 관광은 콘텐츠다'를 주제로 '2016 제51회 광주문화관광포럼'을 개최한다.

첫번째 강사로 나서는 제주 올레길 개발자 서명숙(사진) 이사장은 '제주 올레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느림의 미학, 제주 올레

길 성공사례로 본 광주 무돌길 제언)'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서 이사장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걸으며 착안한 제주 올레길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걷기 열풍을 일으켰다.

이어 인기 TV프로그램 '1박2일', '응답하라 1994·1997', '무한도전' 등에 참여한



김관주 작가는 '방송 콘텐츠의 힘(TV매체가 지역관광에 미치는 힘)'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작가는 방송 경험을 토대로 방송 매체가 지역 관광 산업 발전·홍보 등 어떠한 영향이 끼쳤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의 062-611-36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